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뉴스레터 제 275 호

2023년 2월 15일

- 목 차 -

■ 협회 소식

1. UNGC 한국협회, 지진 피해 튀르키예에 위로 서한 발송
2. 2023 년도 UNGC 실무그룹 모집 안내 (~2/24)
3. 제 2 회 KRX-UNGC-UN Women-IFC 성평등을 위한 Ring the Bell 안내 (3/10)
4. 2023 년도 ESG 멘토링 프로그램: 멘토 모집 안내 (~2/21)
5. UNGC 한국협회 개정 COP 설명회 개최 안내 (2/16)
6. 제 8 차 기후행동라운드테이블 (CART) 결과 공유
7. [Monthly Insights 2 월호] ‘그린워싱’ 요약

■ 본부 소식

유엔글로벌콤팩트, 새로운 아·태지역 허브 론칭

■ 회원사 ESG 우수사례

[UNGC 회원사 ESG 우수사례] KB 증권

■ SDGs 소식

[SDGs 솔루션] 탈라(Tala) - 저소득층의 금융포용 솔루션을 제공하는 플랫폼

■ UNGC & 회원사 뉴스

1. HMM,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 "ESG 경영 강화"
2. 아모레퍼시픽, 韓 이어 中서도 재생에너지 100%로 제품 만든다
3. 콜마그룹, 지주사 주도로 부패방지·윤리경영 박차
4. 포스코인터내셔널, LNG 전 벨류체인 완성에 첫 걸음
5. 카카오, 제주 오피스 재생에너지로 전환해 'RE100' 달성

■ 회원사 안내

1. 신규·재가입 회원
2. COP/COE 제출회원
3. UNGC 로고 사용정책
4. 한국협회 가입 안내

협회 소식

1. UNGC 한국협회, 지진 피해 튀르키예에 위로 서한 발송

지난 2월 6일 튀르키예 동남부와 시리아 북부를 강타한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튀르키예에서 지진 사망자가 3만 5천 418명, 부상자가 10만 5천 505명으로 추가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피해 지역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하며, 튀르키예 협회에 유연철 사무총장 명의의 위로 서한을 발송하였습니다.

[자세히 보기](#)

2. 2023 년도 UNGC 실무그룹 모집 안내(~2/24)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회원사 실무진 대상으로 2023년도 실무그룹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UNGC와 지속가능성 여정을 함께 할 회원사 실무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UNGC 한국협회「실무그룹」이란?

UNGC 회원사 실무진의 역량강화를 통해 기업[기관] 내 ESG, 인권, 환경, 반부패 등의 이슈 내재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국내외 동향 및 주요 아젠다에 대해 논의하고, 참여사 간 추진현황을 공유하는 지식 공유 및 동료 학습 플랫폼입니다.

*보안시스템 등으로 인해 등록이 안 될 경우, 참석희망 날짜와 함께 소속(기업·기관명 및 소속부서)/성함/직함/이메일/전화번호를 적어 gckorea@globalcompact.kr 로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이상현 과장 (02-4327-9771, gckorea@globalcompact.kr)

자세히 보기

3. 제 2 회 KRX-UNGC-UN Women-IFC 성평등을 위한 Ring the Bell 안내 (3/10)

제2회 KRX-UNGC-UN Women-IFC 성평등을 위한

Ring the Bell

일 시 2023년 3월 10일(금) 09:00 - 10:45

장 소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마켓스퀘어

‘성평등을 위한 종을 울리자’는 의미의 ‘링더벨(Ring the bell)’ 캠페인은 매년 3월 초, 세계 여성의 날을 기점으로 전 세계 증권거래소에서 열리는 타종 행사입니다. 본 이벤트는 세계거래소연맹(WFE),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유엔 여성기구(UN Women), 지속가능증권거래소(SSE), 국제금융공사(IFC) 등의 지지와 지원을 받아 전 세계 100여 곳의 거래소에서 열리는 대표적 성평등 캠페인으로, 올해 국내에서는 한국거래소(KRX, Korea Exchange), UNGC 한국협회, UN Women 성평등센터, IFC 한국사무소 공동주최로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타종 행사가 개최됩니다.

금번 성평등을 위한 Ring the Bell 행사에서는 “DigitAll: Innovation and Technology for Gender Equality”를 주제로, 과학 기술 분야에서 활약 중인 여성 리더들과 국내 현황을 진단하며 여성 대표성 향상을 위한 제도의 방향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그 과정에서 시사점을 공유하는 세미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KRX, UNGC 한국협회, UN Women 성평등센터와 IFC 한국사무소는 ‘제2회 성평등을 위한 Ring the Bell’이 성평등과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다시금 넓히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며, 성 다양성 존중과 포용성 증진의 중요성을 국내 시장에 알리고, 이를 확산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보안시스템 등으로 인해 구글 링크 연결이 어려우실 경우, [참석신청서\(수기\)](#)를 작성하시어 gckorea@globalcompact.kr 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김두일 연구원, 070-4327-5057)

자세히 보기

4. 2023 년 ESG 멘토링 프로그램: 멘토 모집 안내 (~2/21)



UNGK 한국협회
2023년도 ESG 멘토링 프로그램
-멘토(mentor) 모집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ESG 업무 담당자 간 벤치마킹 및 동료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ESG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UNGC 회원사 중 희망하는 기업 간 멘토-멘티 매칭을 통해 진행되는 ESG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멘토(mentor)가 되어주실 기업 담당자를 모집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멘토 기준: ESG 경영을 고도화해 나가고 있는 기업에서 ESG 업무를 최소 3년 이상 진행한 과장급 이상 담당자로, 열정을 가지고 멘티 기업들의 성장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분

- *보안시스템 등으로 인해 등록이 안 될 경우, 참석희망 날짜와 함께 소속(기업·기관명 및 소속부서)/성함/직함/이메일/전화번호를 적어 gckorea@globalcompact.kr 로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이상현 과장 (02-4327-9771, gckorea@globalcompact.kr)

자세히 보기

5. 2023년 COP 설명회 개최 안내 (2/16)



UNGC 한국협회
개정 COP 설명회

2023년 2월 16일(목) 14:00-15:30
온라인 진행(신청자 대상 ZOOM 링크 송부 예정)

안녕하십니까,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입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오는 2월 16일,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COP 정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본 설명회에서는 개정된 COP 정책에 대한 브리핑을 비롯하여, 새로운 COP 질문지와 디지털 플랫폼 등을 소개할 예정이오니, 회원사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보안시스템 등으로 인해 등록이 안 될 경우, 참석희망 날짜와 함께 소속(기업·기관명 및 소속부서)/성함/직함/이메일/전화번호를 적어 gckorea@globalcompact.kr 로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설명회는 녹화되며, 추후 시청 링크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문의: 이상현 과장 (02-4327-9771) 김두일 연구원 (02-4327-5057)

[자세히 보기](#)

6. 제 8 차 기후행동라운드테이블 (CART) 결과 공유

<Seizing the Opportunities of Change>



1 월 16 일(목), 세계자연기금(WWF) 한국본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한국사회책임투자 포럼이 주최하고 한국씨티은행이 후원한 제 8 차 기후행동라운드테이블(CART)이 개최되었습니다. 50 여개 기업의 실무진들 90 여명이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참석한 본 행사에서는 “Seizing the Opportunities of Change” 주제 하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cience-based Target initiative) 및 재생에너지 조달 관련 국내외 최신 현황과 기업 사례를 국내 실무진들에게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세히 보기](#)

7. [Monthly Insights 2 월호] '그린워싱' 요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의 Monthly Insights 2 월호에서는 제 27 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발표된 “청렴의 중요성: 기업, 금융기관, 도시 및 지역의 넷제로 서약 보고서”를 통해 비국가 주체들이 넷제로 목표 달성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넷제로 서약 공표 △투명성과 책임성 증대 등의 10 가지 권고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전문가 인사이트 코너에서는 캐린 매스 (Karen Mass) 영국 오픈 유니버시티 회계 및 지속가능성 교수 겸 임팩트 센터 에라스무스 (ICE) 아카데미 디렉터가 제안하는 그린워싱 방지와 기업 지속가능성 전략 방향성을 전합니다.

뉴스로 보는 ESG 트렌드 코너에서는 환경부의 '자원순환·기후 분야 업무 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그린워싱 과태료 소식, 정부의 원전 비중 35% 상향, 신재생 에너지 30% 대 진입, 시행 1 년차의 중대재해법 개선 등의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Gender Equality Korea 콘텐츠로는 기업의 인재고갈 상황을 타개할 여성인재채용방안에 대한 Bain & Company의 다양한 전략, 여성직원에 대한, 특히 데이터 분야 여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무디스 (Moody's)의 사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넷제로 목표 달성 과정에서 고려할 10 가지 권고사항

- ① 넷제로 서약을 공표하라
- ② 넷제로 목표를 수립하라
- ③ 자발적 크레딧을 사용하라
- ④ 전환 계획을 수립하라
- ⑤ 화석 연료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려라
- ⑥ 기후 옹호 활동과 로비 활동을 일치시켜라
- ⑦ 공정한 전환 과정에서 인간과 자연을 보호하라
- ⑧ 투명성과 책임성을 증대하라
- ⑨ 공정한 전환에 투자하라
- ⑩ 제도화 흐름을 가속화하라

1. 넷제로 서약을 공표하라

리더십은 넷제로 서약이 통일성을 갖추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목표 및 진행상황을 대대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전문가그룹은 기업의 리더십이 책임을 가지고 넷제로 서약을 공표할 것을 권고합니다. 넷제로 서약은 2025년, 2030년, 2035년 등의 시점에 달성할 중간 목표를 포함하며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또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온실가스 넷제로 경로에 부합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제로 또는 제한적인 추가상승(overshoot)으로 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C로 제한하는 견고한 방법론에 기반해야 하며, 전세계 총 배출량이 2030년까지 (2020년 기준) 최소 50% 감소하여 2050년 또는 그 이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는 목표와 일치해야 합니다.

기업이 제출하는 넷제로 관련 보고서는 목표와 서약, 감축경로를 포함하고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 탄소회계금융협의체(PCAF), 파리협정자본전환평가(PACTA), 전환경로 이니셔티브(TPI),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신뢰할 만하고 독립적인 제3자로부터 검증 받을 것이 권고됩니다. 넷제로 목표에 도달하고 영구적인 온실가스 제거 기술 등으로 잔여배출량이 중립화되었을 때 기업은 넷제로 서약을 달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번 Monthly Insights 는 기업이 현재 당면한 그린워싱 논란과 지속가능성발전목표를 향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권고 사항을 전합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이 넷제로 선언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명하는 만큼, 그린워싱 논란에 대한 대응은 기업의 지속가능발전 전략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2. 전문가 인사이트

그린워싱 방지와 기업 지속가능성 전략 방향성



캐런 매스 (Karen Mass)

| 영국 오픈 유니버시티 회계 및 지속가능성 교수 |
임팩트 센터 에라스무스(ICE) 아카데미 디렉터

캐런 매스 교수는 지난 25년 간 지속가능성을 연구하며, 그 중에서도 기업의 역할에 주목해왔을 뿐 아니라, 여러 기업들에 컨설팅을 제공하며, 기업이 지속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방향성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번 전문가 인사이트 코너에서는 캐런 매스 (Karen Mass) 영국 오픈 유니버시티 회계 및 지속가능성 교수 겸 임팩트 센터 에라스무스 (ICE) 아카데미 디렉터의 기업의 사회적 역할 인식과 그린워싱에 대한 우려, 그리고 기업의 업무 방식, 운영 방식 및 조직문화의 변화를 위한 전략적 제언을 전했습니다.

3. 뉴스로 보는 ESG 트렌드

☞ 한국에서도 그린워싱을 저지른 기업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또 유럽연합(EU)과 미국에서 도입한 수리할 권리 도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기후 분야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그린워싱'을 환경성 표시·광고 규정 위반으로 보고, 적발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환경기술산업법을 상반기 중 개정할 계획이다.

- **그린워싱, 최대 300만원 과태료 문다**

매월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최신 동향을 소개하는 <뉴스로 보는 ESG 트렌드> 코너에서는 △ IFRS의 글로벌 지속가능성 및 기후보고 표준 발표 소식 △정부가 13년 뒤 원전 비중을 35%로 상향 한다는 소식 △해외 성별 근로공시제를 통한 남녀 격차해소 방안의 소식 등을 읽어 보실 수 있습니다.

4. 본부소식

2023 UNGC 신년인사: 산다 오잠보(Sanda Ojiambo) UNGC 사무총장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사 여러분,
2023년이 막 시작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에너지 및 식량위기, 경기 침체 등 많은 도전 과제는 지속가능한 세계 구축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목표의 전반적인 진보를 위해 민간 부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영역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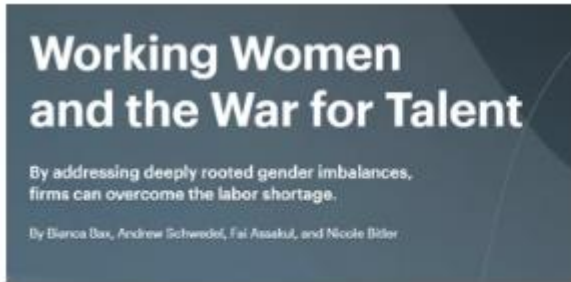
1. 생활임금
2. 기후 변화
3. 성평등
4. 수자원 관리
5. 지속가능한 금융입니다.

CEO들 사이에서 UNGC 10대 원칙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함으로써 신뢰성과 브랜드 가치를 구축할 수 있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유엔글로벌콤팩트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시어, 보다 지속가능한 세상을 향한 진일보를 내딛는 데 도움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본부 소식으로는 UNGC 사무총장 산다 오잠보 (Sanda Ojiambo) 의 신년인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5. GEK(Gender Equality Korea) 콘텐츠



[Bain & Company]

여성 노동자와 기업의 인재 유치를 위한 경쟁



[글로벌 다양성 우수사례]

무디스(Moody's)의 STEM 분야
여성 지원 사례

마지막으로 UNGC 한국협회가 진행하는 다양성 프로젝트인 Gender Equality Korea(GEK)의 콘텐츠를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글로벌 동향 콘텐츠로는 Bain & Company 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현재 기업들의 인재 부족 및 인재 유치 문제의 핵심 해결책은 여성 역량 강화 촉진 이라는 소식과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직원들의 기여를 중시하는 무디스 (Moody's) 의 사례 또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Monthly Insights 는 회원사에게만 제공되는 혜택으로, 매월 첫째 주 수요일 회원사 실무진들에게 발송됩니다. Monthly Insights 관련한 문의 및 제안사항은 gckorea@globalcompact.kr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김의준 연구원, 직통번호 070-4327-5051)

자세히 보기

본부소식

1. 유엔글로벌콤팩트, 새로운 아·태지역 허브 론칭



세계 최대 자발적 기업 이니셔티브인 유엔글로벌콤팩트는 2023년 2월 10일, 새로운 아시아 & 오세아니아의 지역 허브를 태국 방콕에 개소 하였습니다.

새로운 아시아&오세아니아의 지역 허브는 UNGC 지역 협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아·태지역 전역에 걸친 기업 및 산업 전반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및 UNGC 10대 원칙 이행을 보다 강력히 지원할 것입니다. 강화된 UNGC 지역 허브는 다른 국가의, 특히 남반구에 위치한 기업들의 UNGC 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전략적 중추가 되어, 해당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향한 노력을 강화하여 녹색경제 전환을 가속화 할 것입니다.

산다 오잠보(Sanda Ojiambo) UNGC 사무총장은 UN 및 민·관 대표가 모두 모인 자리에서 아래와 같이 전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에서 우리는 기업이 단독으로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보았다. 방콕에 개소한 새로운 허브는 지역에 대한 진일보된 이해와 대응을 가져다 줄 것이며, 기업과 이해관계자들은 유엔의 시스템을 심분 활용하여 지속가능경영을 달성하도록 이끌어 나갈 것이다. 더불어, 새로운 아·태지역 허브는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 및 책임경영의 변화를 선도하며, 이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UNGC의 아·태지역 허브는 기존 UNGC의 프로그램 뿐 아니라,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현지화하여 아·태지역 내 기업의 요구사항과 기회에 즉각적인 피드백을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아·태지역 내 현존 UNGC 네트워크를 보다 강화하고, 기업의 UNGC 활동 참여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아가,

허브로 지정된 방콕 시는 앞으로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ESCAP), 유엔 상주 조정관(UN Resident Coordinator)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조성할 것이며, 새로운 허브를 통해 현존하는 아시아&오세아니아 14 개국 내의 지역 협회 간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국가들과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기타 샵바르왈(Gita Sabbharwal) 유엔 상주 조정관은 아래와 같이 전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2030 아젠다의 중간지점에 서있다. 민간 부문의 리더십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가속화하는 동력이 될 것이며, 방콕에 설립되는 UNGC 의 새로운 지역 허브는 태국 뿐만이 아닌 아·태지역 전반에 걸쳐 협력을 도모하고, 민간부문이 하루빨리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도록 박차를 가할 것이다.”

수파차이 쉐라바논 (Suphachai Chearavanont) C.P 그룹 CEO 는 전했습니다:

“태국의 민간 부문은 매우 역동적이고 진취적이며,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약속에서 실천으로 옮길 준비가 되어있다.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아·태지역 허브 설립은 매우 환영할 일이며, 이는 아·태지역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UNGC 10 대원칙 이행에 대한 노력과 협력을 나타내는 UNGC 의 약속과 책무의 실현이다. C.P 그룹과 유엔글로벌콤팩트 태국협회는 UNGC 의 새로운 허브 론칭을 축하하며 태국과 기타 아·태지역의 기업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허브와 오래도록 협력할 수 있길 기대한다.”

카베 자헤디 (Kveh Zahedi)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사무차장은 전했습니다:

“아·태지역의 지속가능발전과 기후변화대응에 있어 기업은 반드시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 UNGC 지역허브의 설립은 당면한 과제들을 타개하고, 탄소중립과 녹색경제를 위한 민·관부문의 행동을 가속화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다.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 ESCAP)은 UNGC 와의 강력한 파트너십 및 해당 기관의 지속가능경영 네트워크 동맹을 기대하는 바이다.”

[자세히 보기](#)

UNGC 회원사 ESG 우수 사례



■ E(Environmental) ■ S(Social) ■ G(Governance)

1. 기업 소개

KB 증권은 자기자본 5.44 조원의 초대형 IB(Investment Banking)로 WM, IB, S&T, 기관영업 등 자본시장 관련 전 분야에서 다양한 금융투자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대표 증권사입니다. KB 증권은 국내 최대 금융그룹인 KB 금융그룹의 100% 자회사로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확보하고 있으며, 업계 최고수준의 신용등급으로 재무 안정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KB 증권은 2020년 국내 증권사 최초로 이사회 내 ESG 위원회를 설립하고 전담조직을 신설해 ESG 경영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여 전사에 ESG 경영을 내재화 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유엔글로벌콤팩트가 회원사의 활동 참여도를 평가하여 매년 선발하는 '한국협회 LEAD 그룹 10대 회사'에 선정되며, UNGC의 가치와 10대 원칙 확산을 위해 활발한 대외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KB 증권은 지난해 '한국 ESG 기준원(KCGS)'의 지배구조 부문 평가 A등급, '서스틴베스트'의 ESG 평가에서도 A등급으로 증권사 최고등급을 획득하는 등 업계 최고 수준의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음을 인정받았습니다.

2. ESG 이행 전략 및 현황

KB 증권의 ESG 경영 키워드는 'ESG + i(투자)' 전략으로, 이는 E,S,G 각각의 영역에서 세밀하고 진정성 있게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함과 동시에 금융투자업 특성을 살려 지속가능 투자 분야에서 또한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투자의 외형 확대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닌, 선별적이고 가치있는 ESG 투자를 위한 심사/리스크 기능 또한 강화하여, 투자 및 채권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선두 지위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B 증권의 ESG 경영목표/비전은 "사회와 지속가능한 동반 성장을 위해 ESG 경영을 선도"입니다. 환경·사회적 책임을 선도적으로 이행하고, 기업들의 ESG 경영 파트너로서 전문적 역할을 강화함과 동시에, ESG 투자를 확대하여 바람직한 생태계가 확산되는데 적극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KB 증권만의 차별화된 역량으로 ESG 금융을 창출하고 ESG 투자의 기준을 제시한다면, 투자회사 본연의 성과는 물론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KB 증권만의 '착한 투자의 가치'를 실천하며 자본시장의 발전을 이끌도록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금융
고객의 행복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ESG 중심의 지속가능 경영체계 강화(Plus)
증권업 특성을 고려한 ESG 투자(Investment) 관련 분야의 선도적 지위 확보

E

환경을 위한
책임있는 실천

S

사회적 책임과
고객 가치 제고

G

거버넌스 체계
선진화 및
기업 신뢰도 제고

I

ESG 투자 관련
선도적 가치 창출

3. 사례

◆ 친환경 경영 강화를 통한 탄소배출량 절감 추진

KB 증권은 KB 금융그룹의 계열사들과 함께 2030년까지 내부 탄소배출량 42% 감축(2020년 대비)을 목표로 'Paperless·Save Energy·No Plastic'이란 구호 아래 다양한 사내 친환경 캠페인을 실행하며 임직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KB 증권은 2018년 초 영업점에 전자서식 기반의 디지털 창구를 도입했습니다. 계좌개설을 비롯한 각종 업무처리 기반을 종이 대신 전자방식으로 전환해 신속한 업무 인프라를 마련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높임과 동시에 탄소 배출량 감축(18년 대비 19년 종이서식 사용은 62% 이상 감소) 효과도 얻었습니다. 또한 전자 '복사용지 줄이기 캠페인' 및 고객 참여형 '종이고지서의 디지털방식 전환 캠페인'을 전사적으로 실행하면서 환경보호 및 사회적 비용 감소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가 사옥 내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 내연기관 업무용차량의 친환경차량 전환, 친환경 소재 체크카드 출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친환경 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KB 금융그룹이 국내 금융그룹 최초로 '탈석탄 금융'을 선언함으로써 KB 증권은 국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신규 프로젝트 파이낸싱 및 채권인수 중단을 결정하는 등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 차별화된 ESG 투자 및 지속가능 금융상품/서비스 제공

KB 증권은 책임 투자 확대와 지속가능 투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발맞춰 'ESG 연계 투·융자 및 상품/서비스 No.1 House'를 목표로, ESG 채권 등을 적시에 공급하며 기업과 자본시장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DCM(채권발행 주관) 분야 1 위인 KB 증권은, 기업의 니즈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차별화 전략으로 ESG 채권 주관 시장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ESG 포럼'을 개최하여 인증기관과 발행회사,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패널로 참여해 국내외 ESG 채권 현황과 전망, ESG 채권 평가모형, ESG 경영사례 등 실제 현장에서 궁금해 하는 주제들로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 3월에는 직접 1,100억원 규모의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등 자본시장에서 지속가능경영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ESG 상품과 리서치 기능도 확대, 강화하였습니다. 유럽탄소배출권 선물에 투자하는 ETN을 신규 상장했으며, 미국 및 유럽 ESG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를 출시했습니다. 전문적이고 차별적인 ESG 투자 정보를 제공하고자 리서치센터 내 ESG 섹터를 전담하는 ESG 솔루션팀을 신설해, 양질의 ESG 리서치 자료를 제공하며 고객사의 ESG 투자 전략 수립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가 주관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에 참여하고자 2021년 말 배출권거래증개회원 자격을 부여받아 자기매매를 통해 배출권 거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탄소배출권 비즈니스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조직 내 탄소/에너지금융팀을 신설하였고, 2022년 배출권거래시장 시장조성자로 선정되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며 시장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감독기관에 자발적 탄소배출권의 자기매매 및 장외 중개업무에 대한 부수업무를 신고하여 새로운 시장에서의 역할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시장과 기업고객들의 정보를 제공하고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2022년 10월, 제 1회 탄소중립 전략 포럼을 개최하여 배출권 할당업체, 정부/공공기관, 시장 참여자를 초청하여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대응전략을 논의하였습니다. KB 증권은 계속해서 범국가적 이슈인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한 생태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리더십을 통한 탄소중립 선순환 구조가 자리잡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계획입니다.

◆ 외부 기관과의 협업,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다양한 CSR 활동 전개

제주지역에서 다회용컵 대여 서비스를 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주)푸른컵과 2022년 9월 후원 협약을 맺고 다회용컵 제작 지원 및 일회용컵 줄이기 운동을 함께 추진했습니다. 푸른컵은 아름다운 섬 제주 기반의 친환경 스타트업으로 다회용컵을 공항 또는 제휴된 카페에서 대여하여 최대 7일간 사용하고, 제주를 떠날 때 반납하는 프로세스를 통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제로웨이스트 인프라를 구축해나가는 기업입니다. KB 증권은 친환경 캠페인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어 우리 일상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향후에도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친환경 기업/기관 발굴을 통해 사회와 '동반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특히 2022년 여름에는 'Change Our Life(금융을 넘어 환경까지)'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지역사회 국민, 고객들과 함께 즐겁게 추진하는 사회공헌 사업을 시도했습니다. 첫번째 프로젝트로 젊은 서핑족들이 많이 찾는 강원도 양양 인구해변에서 MZ 고객들과 함께 해변을 청소하는 '플로깅' 이벤트를 진행해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캠핑객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서울 난지캠핑장의 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참여하였습니다.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KB 증권 그린성장로드' 조성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캠핑장 둘레 산책로 총 290m에 약 7,300여그루의 나무와 꽃을 심어 그린성장로드를

완공하였습니다. 또한 그린성장로드 완공을 기념하며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과 함께 서울시 취약계층을 난지캠핑장에 초청해 ‘KB 증권 행복그린캠핑’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금융을 넘어 환경까지’라는 ESG 경영 이념 아래, 환경보호 및 지역사회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다양성과 포용성을 바탕으로 한 여성인재 육성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KB 증권은 그룹의 다양성 정책인 ‘Diversity 2027 전략’을 바탕으로 양성평등 및 여성인재 육성 강화, 일하는 방식 개선 등 일하기 좋은 일터를 만드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KB 증권은 증권업계 최초로 여성 CEO를 배출한 회사로, 2019년 여성가족부와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여성 리더 비율을 13%(19년)에서 20%(22년)까지 확대하고, 여성 인재 육성을 위한 여성 팀장 Value-Up 과정, 신임 여성 부점장 WE STAR 멘토링 과정 등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여성 리더십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원 근속연수가 15.3년으로 업계 최고 수준이며, 여성근로자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73%, 남녀근로자 육아휴직 복귀율 92.3% 등 여성이 근무하기 좋은 증권회사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인증’을 새롭게 획득하였고, 여성 역량 강화원칙(WEPs) 공식 지지기관으로 양성평등과 ESG 경영을 모범적으로 추진하는 우수기업으로 인정받아 여성가족부장관이 직접 방문하여 격려 및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 미래의 희망, 아이들과 함께 세상을 가꾸는 KB 증권

KB 증권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무지개교실’은 취약계층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9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학습 공간 개보수, 도서관 환경조성, 도서 지원 등 교육 및 문화적 혜택을 받기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진행하였으며, 현재까지 국내 18 개소, 해외 4 개소 등 총 22 개소의 무지개교실을 개관하였습니다. 2021년부터는 ‘아동의 여가 및 놀 권리’ 확충을 위해 ‘세이브더칠드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무지개교실’을 진행 중입니다. 기존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에서 학교놀이 환경개선사업으로 확대하여 초등학교 내 놀이공간 조성 및 놀이문화 개선 등 아이들과 지역사회의 놀이문화 활성화를 돕고,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로 6개 초등학교에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를 선물하였습니다.

4. SDGs 기여 목표 및 참여 중인 글로벌 이니셔티브

◆ SDGs 기여 목표

구분	내용	SDGs
1	지배구조(ESG)	
2	리스크 관리	
3	윤리 및 준법경영	
4	친환경 경영(탄소중립, 투·용자)	   
5	디지털 금융 혁신	   
6	정보보안 및 고객 정보보호	
7	금융소비자보호, 고객중심 경영	
8	인재 육성, 다양성 존중	
9	포용금융, 사회공헌, 공급망 관리	
10	인권경영, 안전보건, 조직문화 개선	

◆ 세계적 흐름에 동참하고자 글로벌 이니셔티브 참여

KB 증권은 사회적 책임 이행 및 ESG 리더십 강화를 위해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에 가입하였습니다. UNGC의 핵심가치인 ‘4대 분야 10대 원칙’을 경영활동에 내재화하여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이해관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투자 연계 사회활동 추진을 위해 아시아벤처자선네트워크(AVPN)에 가입하였습니다. 아시아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을 목표로 소셜 섹터에 자본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달하도록 지원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인 AVPN에 국내 금융사 중 최초로 가입하였으며, 글로벌 임팩트 투자 기회 발굴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증권업 특성에 맞는 투자 연계 사회적 책임 활동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4대 분야(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에 대한 10대 원칙 경영 내재화

UNGC(UN Global Compact)

핵심가치인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 10대 원칙을 기업의 운영과 경영전략에 내재화 시켜 지속가능성과 기업시민 의식 향상에 동참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이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는 세계 최대 자발적 기업시민 이니셔티브
2022년 2월 22일 가입 승인

UNGC 10대 원칙

분야	내용
인권 (Human Rights)	원칙 1 기업이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하고,
	원칙 2 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원칙 3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하고,
노동 (Labour)	원칙 4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배제하며,
	원칙 5 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하고,
	원칙 6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환경 (Environment)	원칙 7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고,
	원칙 8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하며,
	원칙 9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
반부패 (Anti-corruption)	원칙 10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AVPN(Asian Venture Philanthropy Network)

아시아 최대규모 임팩트투자자 및 사회혁신 기관 네트워크로 아시아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셜섹터에 효과적인 자본 조달 지원
2022년 2월 9일 가입 승인(국내 금융사 최초)

[자세히 보기](#)

SDGs 소식

[SDGs 솔루션] 탈라(Tala) - 저소득층의 금융포용 솔루션을 제공하는 플랫폼



탈라(Tala)는 이용자의 금융 이력에 상관없이 모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융솔루션으로, 보통의 금융기관과는 다른 데이터로 대출신청 정보를 평가합니다. 제도권 금융회사의 이용자들은 전 세계 성인 인구의 32%에 불과하며, 아직도 많은 금융소외계층이 시중은행을 통한 대출 신청이 어렵습니다.

탈라 어플리케이션은 혁신적인 데이터기반 고객평가 시스템을 통하여 시중은행 대출을 받기 어려운 30 억 명의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탈라는 이용자의 핸드폰 데이터에 접근해 전화 사용량, 영수증, 거래 확인 문자 내역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용을 평가합니다. 또한 공정하고 윤리적인 평가 알고리즘을 위해 성별·언어 등의 정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탈라 대출신청자들 중 85% 이상이 10 분 이내에 신청 결과 승인을 받고 \$10~\$500 를 대출 받습니다. 2019 년 기준 탈라는 전 세계 250 만 명 고객을 대상으로 6 억 달러 이상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탈라는 3 개 대륙 5 개국(케냐, 탄자니아, 필리핀, 멕시코, 인도)에 사용자를 두고 있으며 최근 페이스북의 투자에 힘입어 앱과 서비스를 더욱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솔루션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탈라(Tala)는 성별에 제한을 두지 않는 금융포용을 실천합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여성이 금융기관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남성보다 20%가 낮으며 계좌 개설에도 남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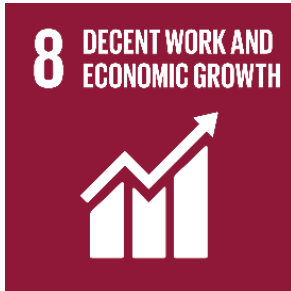
[솔루션이 다루는 지속가능발전목표]

SDG 5 성평등



탈라는 소액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여성들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여 여성의 경제 참여 기회를 늘립니다.

SDG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제도권 금융회사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소액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하여, 다양한 배경과 능력을 가진 시민들의 경제 참여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세히 보기](#)

UNGC 한국협회 & 회원사 뉴스

1. HMM,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 "ESG 경영 강화"



- HMM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강화와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해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에 가입했다고 6일 밝혔다
- HMM은 UNGC 가입으로 ESG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인 '책임 있는 인권경영'을 추진해 전사적 ESG 경영 역량을 향상할 계획
- 유연철 UNGC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해양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고려하는 포용적 비즈니스가 주류화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친화적 물류 서비스를 선포한 HMM의 UNGC 가입이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 아모레퍼시픽, 韓 이어 中서도 재생에너지 100%로 제품 만든다



- 아모레퍼시픽은 중국 경영 키워드로 ESG 를 내걸며 중국법인의 지속가능한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7년 내 재생에너지를 100% 활용해 제품 생산에 나선다고 밝힘.
- 제품 포장재 플라스틱 사용량 절감과 플라스틱 포장재 100% 재활용, 재사용 또는 퇴비화, 중·소 협력사와 함께 친환경 기술을 개발·지원하는 동반성장 프로그램 등으로 목표 달성 계획.
- 아모레퍼시픽은 2025년까지 전사 재생에너지 사용률 100%를 실현한다는 목표를 선언한 바 있으며 2030 지속가능경영 5대 약속을 공개하고 글로벌 생산사업장의 탄소 중립을 선언했음.

더구루

3. 콜마그룹, 지주사 주도로 부패방지·윤리경영 박차



- 한국콜마홀딩스, 한국콜마, HK 이노엔, 콜마비앤에이치 등 4 개사가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과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 37301) 통합인증을 획득함.
- ISO 37001 및 ISO 37301 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기업이 부패 및 뇌물 방지, 모든 법률과 규정 및 행동강령에 따라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제정한 국제 인증 표준.
- 한국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는 지난해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도입하고 컴플라이언스 문화 확산을 위해 통합인증을 본격 추진.

파이낸셜뉴스

4. 포스코인터내셔널, LNG 전 밸류체인 완성에 첫 걸음



-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에너지 밸류체인을 강화를 통해 친환경 종합사업회사로 거듭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섬.
- 포스코인터내셔널이 2025년 완공 예정인 액화천연가스(LNG)터미널 착공식을 개최. 이는 LNG 탱크 20만킬로리터(kℓ)급 2기를 추가 증설하는 사업임.
- 이번 증설로 LNG 밸류체인 완성을 하여 재생에너지, 수소인프라 등 친환경에너지 분야 사업 범위를 넓혀 양, 질의 성장을 이룰 계획임.

서울와이어

5. 카카오, 제주 오피스 재생에너지로 전환해 'RE100' 달성

kakao

- 카카오의 제주 오피스가 에너지 IT 소셜벤처 식스티헤르츠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를 통해 'RE100' 달성을 밝힘.
- 카카오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시민의 손을 통해 직접 생산된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구매하여 2022년 한 해 동안 제주 오피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소모된 전력의 전량을 친환경 태양광 에너지로 조달함.
- 카카오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이용하는 전체 전력 사용량을 오는 2030년까지 60%, 2040년까지 100%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할 계획임.

전자신문

회원사 안내

1. 신규·재가입 회원

1월 26일부터 2월 15일까지 UNGC에 가입한 신규 회원사는 1 곳입니다.

- HMM

2. COP/COE 제출회원

1월 26일부터 2월 15일까지 COP 및 COE를 제출한 회원사는 없습니다.

미제출 회원사는 제출기한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제명될 위험이 있사오니 빠른 시일 내에 COP/COE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COP 정책에 따라, 회원사는 매년 일괄제출기간(3월-6월)에 COP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 내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 회원사로 분류되며, 미보고 회원사 전환 후 6개월 이내(7월-12월) COP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 리스트에서 제명(De-list)됩니다. 또한, 기존 서술 형식에서 표준화된 질문지로 전환됨에 따라 지속가능경영보고서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없습니다.

비영리 회원은 기존 정책에 따라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 첫 COE를 제출하고, 이후 2년마다 COE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 회원사로 분류되며, 이후 1년 후에도 COP/COE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list)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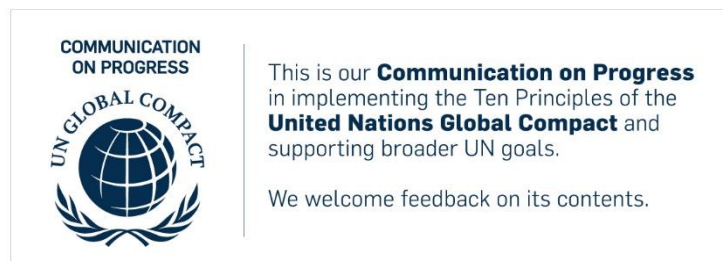
[개정 COP 정책 확인하기](#)

3. UNGC 로고 사용정책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회원과 이해관계자가 유엔글로벌콤팩트와 10대 원칙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에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에 한하여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로고 사용 허가 요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상태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이며, COP/COE 가 active 인 상태
- 기업의 연간 총 수익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는 참여레벨을 선택한 단체
- COE 를 제출한 비영리 단체



“Communication on Progress the Global Compact” 로고는 COP 를 작성하는 회원이라면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의 사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로고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4. 한국협회 가입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한국 내 이행과 확산을 위한 세계 네트워크의 한국 대표기관입니다. 회원사는 한국협회 참여를 통해 회원 브랜드 가치 전파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회원사 간 상호 교류 및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 방법 및 참여 혜택 바로가기](#)

기업 정보 및 담당자 변경 시 아래와 같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UNGC 본부 사이트(www.unglobalcompact.org)에서 관련 정보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UNGC 한국협회 사무처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 연락(메일/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0 층

Tel: 02)749-2149/50 Fax: 02)749-2148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Home: www.unglobalcompact.kr

Blog: http://blog.naver.com/ungc_korea